



## 미 증시, 8월 고용쇼크 여진 등으로 혼조세

### 미국 증시 리뷰

7 일(화) 미국 3 대 증시는 중국의 8 월 수출입서프라이즈, 아이폰 13 출시 기대감에 따른 애플(+1.6%) 등 일부 대형 성장주 강세에도, 지난 금요일 미국의 8 월 고용 쇼크 이후 델타 변이 확산에서 기인한 경기 회복 지연 불안감이 재차 부각된 여파로 혼조세 마감(다우 -0.8%, S&P500 -0.3%, 나스닥 +0.1%).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0.45%), 경기소비재(+0.36%), 기술(+0.03%) 등이 강세, 산업재(-1.8%), 유틸리티(-1.4%), 부동산(-1.1%)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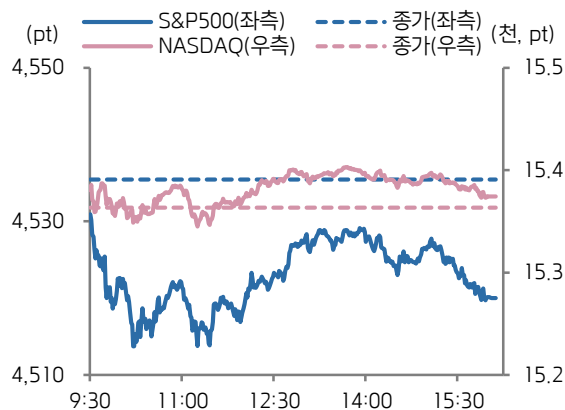
중국의 8 월 수출(YoY)은 +25.6%로 전월(+19.3%) 및 예상치(+17.1%)를 상회, 8 월 수입도 +33.1%로 전월(+28.1%) 및 예상치(+28.8%)를 모두 상회하며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를 기록. 터미널, 향만 등 물류차질 해소, 자연재해 영향 소멸 등에 아세안(22.8%), EU(+22.1%), 미국(+25.8%) 등 주요 교역국향 무역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입 서프라이즈를 견인.

### 미국 증시 평가

한동안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었던 중국은 8 월 수출입 서프라이즈, 정부의 추가 부양 기대감 등으로 이 같은 우려가 완화된 반면, 이제는 미국의 경기 둔화 쪽으로 시장의 우려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지난 8 월 고용쇼크가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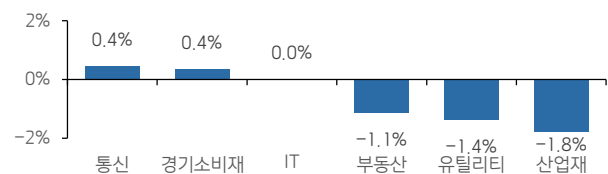
골드만삭스에서는 델타변이 확산, 재정부양효과 감소 등으로 4분기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5%에서 5.5%로 하향조정하는 등 대형 IB 에서도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후퇴하고 있는 모습. 다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고용, 소비 부진이 미국 경제의 회복경로를 이탈시킬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럼에도 미국 증시의 경우 연준발 정책불확실성이 극대화됐던 8 월에도 수차례 고점을 경신한 만큼, 그동안 누적된 고점 부담감이 단기적으로 시장참여자들의 차익실현욕구를 강화시키면서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에 유의.

S&P500&NASDAQ 일중 차트(9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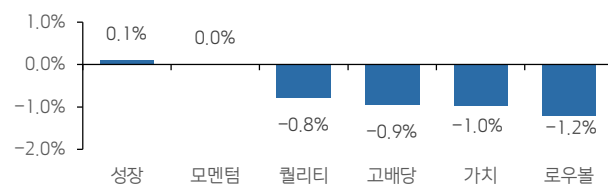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9월 7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9월 7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b>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b>	MSCI 한국 지수 ETF 는 1.4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5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62.7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b>주요 체크 사항</b>	1. 미국발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 둔화 여부 2. 9일(목) 국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따른 현선물 수급 변동성 조기 확대 가능성 3. 암호화폐 시장 폭락으로 인한 관련 테마주 추가 급락 여부

###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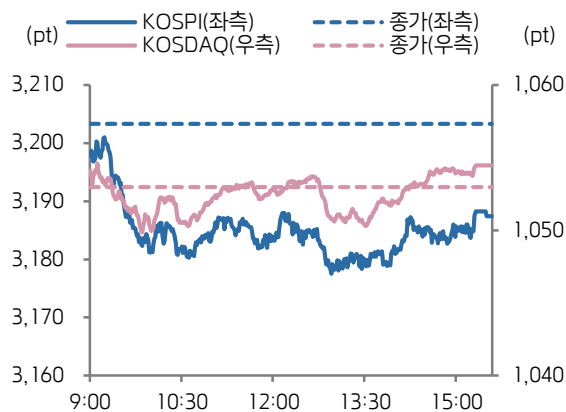
7일(화) 코스피는 중국 8월 수출입 서프라이즈에도, 미국 증시 휴장 여파로 미국 등 선진국발 신규 재료 부재 속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차익실현성 동반 순매도로 반도체 등 대형주들이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 다만, 코스닥은 친환경 관련 테마주들이 정책 모멘텀 기대감 재확산에 힘입어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소폭 상승 마감(코스피 -0.5%, 코스닥 +0.1%). 업종별로는 기계(+2.8%), 종이목재(+1.3%), 의약품(+0.1%) 등이 강세, 비금속광물(-1.3%), 은행(-1.1%), 의료정밀(-1.1%)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00 억원, 1,200 억원 순매도, 개인이 4,530 억원 순매수를 기록.

###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미국발 경기 둔화를 둘러싼 불안감, 9일(목) 동시만기일 경계심리 등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 현재 비트코인(-8%대 급락, 업비트기준) 등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음 감안 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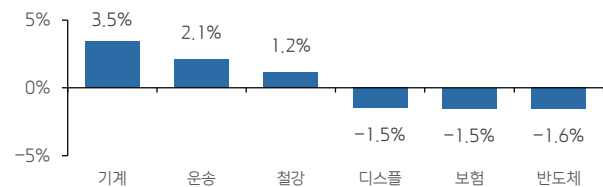
다만, 선진국 경기 둔화 우려에서 기인한 주가 하락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델타 변이 확산이 미국에서도 보건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증시 차원에서는 수차례 알려져 있었던 악재였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 추후 영국, 이스라엘 등에 이어 미국, 한국 등 여타 국가들도 포스트 코로나가 출현하기 이전에 위드 코로나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상의 요인을 감안하면 델타 변이 확산이 주요국 경제 회복세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둔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9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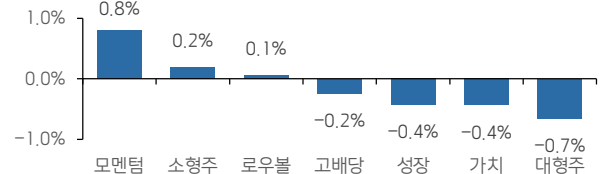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9월 7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9월 7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